

유아용 그림책의 이용에 나타난 이중독자구조의 탐색

- 만 5세 유아 가정에 대한 사례연구 -

최 나 야(가톨릭대 조교수)

이 연구는 유아와 성인이 그림책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림책의 구입과 활용 과정에서 유아와 성인이 이중독자로 기능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10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세 유아 총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가정 문해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보조 관찰자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 아버지, 유아 각각에 대해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고, 가정 문해환경 척도(CHELLO)를 이용해 도서 영역, 도서 사용, 쓰기 도구, 놀잇감, 기술에 대한 22문항을 관찰, 평정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내용을 녹음한 후 컴퓨터로 전사하고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에게 그림책을 구매, 대여해주는 주체는 어머니로, 아버지의 개입은 거의 없으며, 전집류를 개발, 판매하는 출판사나 대여업체의 직원이 어머니의 책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제3의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유아 스스로의 선호와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연구 참여자 어머니들은 단행본 그림책에 비해 전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선택의 용이함, 경제성, 주변 어머니들과의 경쟁심리,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 등에 기인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책을 마련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책이 학령기 이후 학습에 미칠 영향력을 꼽았으며, 이에 따라 도서 '공급자'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선호하는 유아의 그림책은 유아 스스로가 선호하는 그림책과 차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와 부모가 선호하는 소장 도서는 각기 다르며, 선호 이유도 달랐다. 유아들은 주로 책 내용의 흥미를 선호 이유로 보고했으나, 부모들의 선호도에는 도덕적 교훈이나 정보 전달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적 측면뿐 아니라 책의 편집 수준, 작가 및 출판사의 인지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와 성인이 그림책의 독자로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상당수의 아버지들은 자녀의 그림책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선호하는 그림책도 없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기 전의 시간을 이용해 유아에게 그림책을 정기적으로 읽어주고 있는데, 아버지의 참여도는 어머니에 비해 극히 낮았다. 매번 읽고 싶은 책들을 선정하는 역할은 주로 유아들이 맡지만, 이 과정에는 어머니의 의사도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년 이상 그림책을 접해온 유아들이 아직 책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며, 부모 중 어머니가 그림책의 구입과 활용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에서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가 예술적, 문학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 책을 이용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에 따라, 가정의 문해환경 및 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그림책의 선택과 활용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유아와 성인이 함께 그림책을 즐기는 이중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제기된다.